

經濟難局의 克腹위해

— 科学技術 振興은



成佐慶長官

尊敬하는 科学技術者 여러분. 그리고 内外 貴賓 여러분.

오늘 本人이 科学技術人의 한사람으로서 国内外 韓國科学技術者 綜合學術大會에 參席하여 祝辭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랜 歲月동안 故國을 떠나 異域万里 海外에 계시면서 大學과 研究所, 그리고 產業界의 一線에서 世界 尖端의 科学技術을 呼吸하면서 學問을 研磨하며 技術을 蓄積하고 이번에 歸國하신 여러분과 家族여러분의 母國 訪問을 眞心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로 일곱번째를 맞이하는 이 綜合學術大會는 그동안 国内外 科学技術人의 紐帶強化와 아울러, 學問的인 討論과 對話를 통해 우리나라 과

학기술발전에 큰 寄與를 해오고 있습니다. 特히 이번 大會는 우리 國民 모두가 技術革新을 期待하고 있는, 80年代의 첫해를 맞아 열리는데 더욱 큰 意義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經濟發展에 힘을 써오면서 科学技術의 發展에 努力하여 어려운 속에서도 現代的인 研究機關들을 設立하였고 科学技術人力養成을 위한 基盤도 갖추어 왔으며 이제 產業界도 自体의 技術開發에 큰 關心을 기울여 科学振興과 技術革新의 与件이 成熟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科学技術의 土台위에서 80年代에는 政府, 大學, 研究機關, 產業界가 더욱 힘을 합하여 科学技術發展을 加速化시키고 國家經濟開發과 國民福祉 向上에 寄與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世界는 에너지 危機라는 커다란 暗礁에 부딪쳐 脫石油에의 活路를 찾기에 몸부림 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科学技術을 總動員하여 資源 및 에너지 技術發展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賦存資原이 不足하여 工業原料와 에너지源의 大部分을 海外에 依存하여야 하는 國家들의 어려움은 特히 深刻합니다. 더욱이 今年 우리나라 經濟는 上半期에 마이너스 成長을 이룩할만큼 어려운 時點에 있습니다. 社會가 安定되어 감에 따라 最近에 漸次的으로 回復趨勢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밝

科學技術 總動員 金요

自衛力量과 直結 —

은 앞날을 期約하며 오늘의 經濟 社会的 어려움을 슬기롭게 克服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科學技術의 劃期的인 振興을 위해 關聯되는 모든 人的 物的 資源과 潜在力을 結集시키고 活性化하는데 倍前의 努力을 기울여 나가야만 하겠습니까. 이를 위해 政府는 이 分野의 政策 및 制度的인 發展을 促進하면서 꾸준히 投資를 늘려나갈 方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政府의 支援과 協助만으로 우리나라의 科學技術이 向上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무엇보다도 이 分野에 從事하는 分들의 獻身的인 努力이 絶실히 要請된다고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科學技術人들은 우리의 知慧와 力量을 合하여 經濟的 어려움을 克服하는데 積極寄与하여야겠다는 마음가짐을 더욱 다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国内에 居住하는 分은 勿論 在外 科學技術者 여러분도 항시 우리나라가 勉한 어려운 現實과 課題를 되새기고 우리 科學技術人들이 안고있는 使命의 크고 무거움을 일깨워 研究와 研鑽에 더욱 精進함으로써, 來日의 富強한 祖国建設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北韓共産集團이 상금도 赤化統一의 妄想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安保的 狀況에 비추어, 国軍장비의 現代化와 国防産業의 育成을 뒷바침하는 科學技術의 振興은 우리의 自衛力量 強化와도 直結되는 매우 重要한 課題라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時点에서 国内外 科學技術者들이 한자리에 모여 基礎科學, 環境保存, 生命科學, 資源, 에너지 및 重化學工業에 관한 研究發表와 討議를 갖게된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本人은 이번 大會가 參加者 여러분의 研究生活에 寄与함은 勿論 우리나라 科學技術의 向上에 貢獻하는 값진 機會가 되기를 期待하면서 国内外 科學技術者 여러분의 健闘와 여러분의 家庭에 幸福이 깃들기를 祈願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1980. 7. 14.

科學技術處長官 成 佐 慶